

농어촌·농어업 발전의 100년 청사진 그린다!

- 「KRC 미래포럼」 출범, 농어촌의 미래 新가치 창출을 위한 공사의 역할 고민 -

한국농어촌공사는 9일 ‘국민과 함께한 100년, 국민과 함께 할 100년’을 슬로건으로 「KRC 미래포럼」 출범식을 갖고, 공사 미래의 발전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다.

‘KRC 미래포럼’은 기후·인구구조의 변화, 농어촌 소멸,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춰 공사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위원장으로 사람, 자연, 기술 등 3개의 의제를 분과로 나눠 분과별 학계, 기업, 농어업인 등 외부 전문가 15명과 내부 전문 위원 15명이 구성되었다.

이날, 공사는 출범식에 이어 ‘미래포럼 제1차 회의’를 통해 공사의 미래 변화의 주체로서 선호 미래* 실현의 핵심 요소인 **사람**, 지속 가능한 농어촌 환경조성을 위한 미래 공존의 대상인 **자연**,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**기술** 등 미래 발전을 견인할 3가지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였다.

* 선호미래: 여러 노력을 기울여 맞이하는 ‘바라는 미래’

아울러, △농어촌의 청년 유입 촉진 방안 △글로벌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 생산체계 전환 △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공사의 역할 △인공지능과 로봇·드론기술 등 주제별 혁신 과제 발굴에 초점을 두고,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.

이병호 사장은 “지난 115년 역사를 발판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농어업, 농어촌 환경에 맞춰 새로운 흐름에 부응하는 공사의 역할과 의미를 새롭

게 고민해보아야 할 시점”이라며 “올 한해 열띤 토론을 통해 농어촌, 농어업 발전을 위한 100년의 청사진을 그리겠다.”라고 전했다.

한편, 공사는 오늘 개최한 ‘제1차 KRC미래포럼’을 시작으로 분기별(7월, 9월, 11월)·의제별(사람·자연·기술) 주제 발표, 토론회 등 세 차례의 포럼을 나누어 이어 나간다. 이와 함께, 도출된 생각을 실무 태스크포스(TF)*, MZ워킹그룹**을 구성해 이해관계자의 수요와 체감도 높은 미래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.

* 실무 태스크포스(TF):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서별 실무 전문가 임시조직을 구성하여 미래 포럼 운영과 연계한 공사의 「미래 발전방안」 수립

** MZ워킹그룹: MZ세대(1981년~1996년) 직원 중심의 조직을 구성하여 ‘KRC 미래포럼’과 ‘실무 태스크포스(T/F) 협의회’ 등에 정기적인 참여로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기성세대와의 상호 작용 역할 담당

담당 부서	연구기획실	책임자	부 장	김관호 (031-400-1626)
	연구기획부	담당자	차 장	류우한 (031-400-1627)